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7월 20일 (제 1315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 십일조

요즘 인터넷상에서 십일조 무용론이 심심찮게 돌고 있다. 이를 본 우리 교회 청년이 “목사님, 십일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라고 내게 묻는다. 나는 그에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 세상 소리를 듣지 마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많은 목사들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찌니라”(롬7:6)는 말씀을 들어 십일조는 율법의 산물이니, 복음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것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성 교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아니다. 십일조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다(말3:10).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5:17-18)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십일조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아니다. 예수님은 되레 차원이 다른, 차원이 높은 십일조를 강조하셨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찌니라”(눅11:42). 폐일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신앙이다. ‘순백 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하셨으니 하면 된다. ‘교회가 경건하지 못하다’는 자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셨으니 하면 된다. ‘하나님이 귀 먹었냐? 왜 소리를 지르냐?’ 하는 자들 말, 귀담을 필요 없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만물을 명령하라’ 하셨으니 하면 되고, ‘십일조와 첫열매를 하면 복 받는다’ 하셨으면 하면 복 받는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전복되듯 말씀을 벗어나면 인생이 전복된다. 그러니 오직 말씀의 레일을 따라 끝까지 가자. 그날에야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되리라. 우리가 옳았음을!

#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히12:1)

“경주에 나선 말은 달리다 죽는 것이다.” 목사님이 앞에 놓인 집회를 두고 자주 하시는 말씀이다. 목사님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역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가슴에 새겨야 할 명제이기도 하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요20:22) 말씀하셨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미 세

음료들도 속속 담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 알게 모르게, 이름도 빛도 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로 우리 교단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명작을 이루어왔다. 지난주 미국 휴스턴(Houston)에서 엘살바도르 출신 올란도(Orlando del Sid, 44세) 목사가 목사님을 뵈겠다고 찾아왔다. 우리가 엘살바도르 집회를 앞두고 있기에 그의 갑작스런 방문이 범상치 않게 여겨졌는데, 알고 보니 지금 엘살바도르 집회를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는 왈테르(Walter) 목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집회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보통은

산 재개발 사업을 전문학교에서 공부하고 현재 그 사업으로 많은 건물을 지어왔는데, 건물마다 교회를 유치하여 자기가 사는 지역에 54개 교회를 입주시켰다고 한다. 그 지역이 한때는 우범지역이라 했었는데, 교회가 많이 들어온 이후 범죄율도 많이 떨어지고 좋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그의 꿈은 요셉처럼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와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제 고국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란다. 이튿날 서울 시내 관광을 비롯해 웅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간 그는 왈테르 목사에게 이번 엘살바도르 집회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사람을 얻는 지혜로 엘살바



작은 사진: 올란도 목사

엘살바도르 메인스타디움 전경

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누 죄든지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에(요 20:23)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기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 하겠다. 우리 앞에는 청소년 수련회, 성경캠프, 산상집회, 그리고 엘살바도르(El Salvador) 집회가 기다리고 있다. 정말 숨 쉴 겨를 없는 일정인건 하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 이 모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명작을 만들어야 하고, 꼭 만들고야 말 것이다. 지난주 수련회 준비를 위해 선발대 80여 명에 기도원에 내려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시설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수련생들이 먹고 마실 각종 과일 및

목사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보는 게 순서일 텐데, 그는 일절 검색해보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 따라 목사님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항상 그렇듯이 리무진 차로 그를 영접하고 최고의 음식과 선물로 대접하며,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요13:20)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셨다. 또한 “대접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마7:12)는 말씀의 실천이기도 하였다. 목사님은 앉자마자 먼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신 후, ‘꼭 소개할 책이 있는데,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한 권의 사람만 된다면 세계가 너의 밤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일곱 살 때 미국에 이민하여 부동

도르 집회 성공의 기초를 세워가는 목사님의 지혜를 또다시 배운다. 직접 참여할 수 없다면 기도로 동참하면 된다. 먼저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여야 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기 바란다. 오는 9월 초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 있는 메인스타디움에서 3일간 집회를 인도하셔야 하는데, 3주 연속으로 수련회와 산상집회를 진행하시고, 이어지는 일정인지라 성도 여러분의 합심기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 반드시 전대미문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hanmail.net

**전국 연합 청소년 수련회**  
 중고등부 7월 28(월)~30일(수)  
 청년대학부 7월 31(목)~8월 2일(토)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533.9191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8:16)

# 인생은 보물찾기다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갔을 때 가장 신나고 즐거운 시간은 아무래도 보물찾기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선생님은 우리가 자리 잡은 곳에서 멀지 않은 곳 여기저기에 미리 보물이 적힌 종이를 숨겨놓으셨고, 우리에게 '자! 가서 찾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천태만상인지라 찾으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막 달려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거 찾기가 어려워.' 혹은 '거 별거 없어.'라고 미리 단정하고 계속 삶은 계란이나 먹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가 막상 보물이 적힌 종이 보여도 그걸 못 가질 때가 있었지요. 우리 키보다 조금 높은 곳에 종이쪽지가 있다든지, 우리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무거운 돌 밑에 있는 경우였습니다. 보이는데 못 가질 때는 안타까워 발만 동동 굴렀었죠.

그럴 땐 '선생님이 우리를 골탕을 먹이려고 저런 곳에 두었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긴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종이를 떨어뜨리면 된다는 것을, 두꺼운 나뭇가지를 지렛대로 사용해서 돌을 들면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 지혜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다

목회 40년을 지나면서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만물과 만인을 미리 배치해놓으시고,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하신 겁니다. 찾고, 안 찾는 것은 순전히 우리 몫입니다. 미리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한 자는 찾으려고 시도도 안 해 볼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찾다가도 가끔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놓으셨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모를 때입니다.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모를 때입니다. 마치 보물찾기에서 보이지만 조금 높은 나뭇가지에 걸려진 보물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랑 심정이 비슷하지요.

그럴 때는 지혜를 발휘하면 됩니다. 그 지혜 중의 하나가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을 활용하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님이나 친척이 찾아왔을 때 그들 얼굴보다 그들 손에 들린 것에 먼저 눈이 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

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잠18:16). 현대그룹의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천 마리를 끌고 북한에 갔을 때, 그렇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북한의 문의 열렸지 않았습니까? 소천 마리가 철의 문을 연 것입니다.

스바 여왕도 선물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들은 스바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솔로몬을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많은 향품과 금, 보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로몬 생전에 그렇게 많은 양은 처음이었고, 후에도 없었으며, 질도 또 얼마나 좋았는지.

역대하기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향품이 '전에 없던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감동해서 스바 여왕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말해줬고, 스바 여왕이 갈 때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왕상10:13).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선물을 활용해보세요. 그것이 삶의 지렛대가 될 것이고, 뻑뻑한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선물을 자주 활용합니다. 저는 늘 '지력 있는 자나 재력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돕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하지만, 지혜로 활용합니다. 해외 선교를 떠날 때면 자그마한 것들이지만 선물이 많이 준비합니다. 비싼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통문양이 그려진 지갑이나 넥타이 같은 것들을 남대문 시장에서 삽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들에게 직접 넥타이를 매어주며 "우리 주를 위해 같이 목을 매는 거야."라고 말하면 정말 적극

적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 지갑에 백불을 넣어 선물하면서 "네 평생에 재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들은 갖고 있던 명품 지갑을 내던질 만큼 기뻐하고,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꿈보다 해몽이거든요.

9월 엘살바도르 집회를 앞두고도 저는 일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에게 선물을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수도에 있는 메인스타디움 집회가 승인되었습니다. 뇌물은 애당초 마음이 검기 때문에 절대 안 되지만, 선물은 이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밀어붙여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노엽게 한 사람의 마음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이 나그네 스스로 옷을 벗게 한 것처럼, 상대를 감동시키면 마음은 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선물이 톡톡히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잠21:14).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어떤지 잘 아시죠? 철천지 원수기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외가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야곱도 고생을 많이 했지요. 속인 만큼 속임도 당했습니다. 하여튼 친신만고 끝에 거부가 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형 에서가 문제였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제나저제나 하고 원수 갚기를 기다리는 형이 딱하니 버티고 있었기에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고민 끝에 에서에게 먼저 예물을 보내기로 합니다. 염소와 양, 낙타와 황

소를 택하여 앞서 보냅니다.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창32:20) 함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서 선물을 보낸 야곱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후한 선물을 본 형이 분을 풀고 오히려 야곱에게 와서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창33:12)고 하며, 호위를 자처하게 됩니다. 선물이 낳은 결과입니다.

## 구하는 자는 얻을 것ियो 찾는 자는 찾을 것이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잠19:6).

누군가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라고요. 제가 다니는 사우나에 80대 두 노인이 있습니다. 둘 다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젊은 사람들과 골프도 치러 다니고 요즘 핫한 곳도 다니며 아주 재미있게 사는데, 다른 한 분은 늘 혼자 다닙니다. 보기에 외로워 보여요. 왜 이렇게 두 분이 다른가 봤더니, 한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골프 라운딩 비용도 자기가 척척 내니까 사람이 몰리는 것이고, 한 사람은 완전 수전노라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타입인 겁니다. 그러니 다들 그 사람은 'No'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이 선물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뤄졌습니다(요3:16).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롬3:23~24). 하나님은 구원만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행2:38), 각자에게 맞는 은사도 선물로 주셨습니다(고전12:8~11).

기계가 안 돌아갈 때 억지로 돌리면 고장만 납니다. 그럴 땐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원활치 않을 때는 선물을 활용해보세요. 기름칠한 기계처럼 잘 돌아갈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부부 사이가 시큰둥하면, 상사와 사이가 불편하면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특별기고 ::

#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세상일을 하든지 성공자가 되려면 많은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부지런해야 하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도 가져야 하고, 꾸준함과 인내심 등...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 또한 필수 요건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자기 형상대로 복제하시고, 번성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셨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머리가 되고, 꾸어주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주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고, 그 일을 위해 쉬지 말고 뛰라고 강권하셨다(고전9:24~27). 이 말씀 안에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즉 성공자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첫째는 싸움을 싸우되 항방 없이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허공을 치면 소용이 없다. 즉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과녁을 세우고 시위를 당겨야 하고, 분명한 골대를 정해 놓고 공을 차야 한다. 무엇이든지 흔들림 없는 정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류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게임이나 노는 일을 절제해야 하고, 금메달을 목표로 뛰는 운동선수는 많

은 것을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선수촌으로 입소해서 훈련을 한다. 성경 인물 중에도 가인, 아간, 삼손, 사울 왕, 가룟 유다 등이 자기 감정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 패망의 길로 갔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바울처럼 철저히 절제하고 관리하여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주변까지 성공시킨 인물들도 있다.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세상의 이치다. 나라도, 기업도, 개인도 지면 상대에게 끌려다녀야 한다. 전쟁에는 2등이 없다. 지면 끝이다. 그래서 시작했으면 싫으나 좋으나 끝까지 싸워야 한다. 이기는 자만 면류관을 쓰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계시록 2~3장에 일곱 교회들에게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이긴 자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만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을 누리라고 독려하고 계신다. 이 말씀인즉 어떤 모습의 성도이든지 누구나 깨닫고 새로워지면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들만의 축복을 누리고 나눠주며 살아야 한다. 영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절제하기 위해 자신과 끝없이 싸워서 지지 말고 이기며 살아야 한다. 악한 마귀에게도 쳐서 끌려다니지 말고 싸워서 이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이시대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 나비가 되는 날

봄이 되면 휘황찬란하게 날아다니는 나비의 날개는 빛이 아주 찬란하고 곱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갖기까지 말할 수 없는 인내의 과정을 겪는다.

나비의 일생은 알의 시기를 지나 애벌레로, 애벌레를 지나 번데기로, 번데기를 지나 나비가 되는데, 애벌레가 허물을 벗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탈바꿈의 과정을 4번 정도 거쳐야 한다.

한 번 허물을 벗을 때마다 애벌레는 몸도 커지고, 색도 달라지고, 무늬마저 바뀐다. 허물을 다 벗고 난 뒤에는 딱딱한 번데기가 되는데, 번데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비가 되기 위해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는 고치를 뚫고 나와 젖어 있는 몸을 말리면 예쁜 나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인내의 과정이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일 년까지다.

애벌레로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네 번이나 허물을 벗으며 성장한다. 고치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나비는 불평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딱딱한 번데기 껍질 속에 온몸을 가둬 놓는 암흑의 시대를 거쳐 드디어 아름다운 나비로 온 땅을 날아다니며 고운 자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기적은 인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나비의 인내와 관련해 재밌는 일화가 있다. 고치에서 나오는 나비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너무 안타까웠던 나머지 지켜보던 사람이 가위로 고치를 조금 잘라 나오기 편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그 고치에서 나온 나비는 결코 날 수가 없었다. 나비는 고통을 참는 인내가 없이는 날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 찬란하게 이 땅에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도 같은 이치다. 우리 인생도 인내하는 과정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인생을 열매 맺게 한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있는가? 믿음으로 인내해 보자.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총회장 목사님처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전 세계로 뛰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인내의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길 바란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4). 이정금 전도사

이정금 전도사

# 안 쓰면 안 사줘!

"아니, 왜 맨날 그 옷이야? 내가 옷 사줬잖아? 왜 안 입어?"  
"아끼느라고요."  
"아이구~~ 아끼다가 좀 쓴다. 그 옷이 당신보다 오래 살아. 그렇게 안 입으면 다시는 안 사준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자다. 전도서에는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병이요, 악이라 하셨다(전6:1~2).  
화장품을 사줬는데 안 쓴다? 썩고 말지. 자동차를 사줬는데 차고에만 넣어 놓는다? 녹슬지. 돈도 아끼다가 도착만 든다. 무기나 연장도 안 쓰면 녹만 슬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고전12:8~10). 이것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거다(행1:8). 이 은사를 무기 삼아, 이것을 연장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은사를 안 쓰면? 녹슨다. 총구가 녹슨 총은 무용지물이 아니던가. 자고로 우물도 퍼내야 마르지 않고, 작은 웅덩이도 계속 흘러야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는 법. 내가 매일 귀신을 쫓고 방언으로 기도하니 녹슬 틈이 없지 않던가. 자주 쓰는 열쇠가 빛이 나듯 내게 있는 은사는 빛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다. 돈을 쓸 줄 아는 자에게 돈을 더 주시듯, 은사를 유용하게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사를 주신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는 악한 자가 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살아생전에 멋지게 쓰다 가자.

"무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전10:10). 봉우 이초석 목사

## 서울인천 연합 여름캠프

- \* 날짜 : 8월 3일~5일
- \* 장소 : 인천 예수중심교회
- \* 문의 : 02.533.9191
- \* 지교회는 본부로 연락

:: 생명의 말씀 ::

# 작정예배

우리 교회 권사님의 올케분은 집 근처의 타 교단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젊은 권사님이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30년간 우물증을 앓아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며칠씩 침대에 누워 방 안에서 꼼짝을 못했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잘 먹지도 못하면서 우물증으로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올케가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 집안의 대소사나 모임에도 소원해져 10년 넘게 형제간에 왕래가 거의 없었다. 결국 남동생과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오자 시누이인 우리 교회 권사님의 권유로 작정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내가 올케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식사를 잘 못해서 몸이 마르고 웃음기 없는 표정에 말수도 거의 없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고정적으로 이 가정에서 작정예배를 드렸다. 매주 방언으로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귀신을 쫓은 지 두 달, 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아내가 이야기도 잘하고 많이 웃고 식事も 잘하게 되자 우리 권사님의 남동생이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게 되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번 주일에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세 살 난 손주를 데리고 교회에 오셨는데 올케분의 얼굴이 아주 환하게 빛났다. 주일예배 후 권사님과 다 같이 점심을 먹는데 식사도 잘하셨다. 무척 기뻐고 손주가 너무 귀여워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총회장 목사님께 배워서 '확실하게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건 아주 간단하다. 바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심지어 천국 가시는 마지막 그 날까지도, 나는 아주 끝장을 본다. 가정 이든, 사업이든, 배필이든, 물질이든, 교회 부흥이든 안 될 수가 있을까. 안되는 것이 기적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눅18:7). 장순천 목사

:: 동행하는 삶 ::

:: 빛이 되리라 ::

# 난 우리 목사님을 존경해요

올해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교회에서도 중고등부로 올라가게 되었다. 나도 결혼 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오래 했었지만, 학부모로서 중고등부를 접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다. 또 이미 중고등부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어 내심 기대도 되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여러가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신앙과 재미로 탄탄하게 짜여 있어 아이를 중고등부에 보내는 것이 점점 더 만족스러웠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섬김이 참 감동이다. 중1 새내기라고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서 챙겨주시는 모습에 은혜가 절로 된다. 아이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이 즐겁게, 학부모들이 걱정되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모습에 남편은 자기도 저런 선생님이 자신을 챙겨 주면 좋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며 아이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아이도 적응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여 더욱 감사했다.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 토요일에 아이가 두 명의 친구를 전도하여 데려갔다.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 다른 친구에게 공유하며 이상한 교회라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하였다. 아이는 그러한 상황을 해명하면서 많이 속상해했다. 그래도 다른 한 친구는 이상한 곳은 아닌 것 같다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아이를 따라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했다. 나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인데, 그렇게 전도를 잘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라고 말해주었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를 기특하게 보시고 칭찬해주셨다.

아이도 개의치 않고 더욱 열심히 학교 친구들을 전도하던 어느 날, 아이를 좋아하는 한 여자 친구에게도 전도를 했다. 그 친구는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던 터라 자신의 교회에 한 번 와주면 자기도 우리 교회에 한 번 따라오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교회 이름을 물어본 후 자신의 부모님께 이야기했더니 가면 안 된다고 하여 아이가 아쉬워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이에게 “넌 귀신을 믿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이어서 보냈고, 아이는 그 문자를 보고 또 속상해했다. 남편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귀신은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이

름으로 쫓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대답하라 알려주었다. 나중에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나 확인해보니 남편이 해준 말에 아이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난 우리 목사님을 존경해.”라고. 너무 기뻐했고 대견했다.

많은 유혹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아이가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

아이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를 다니는 동안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정성을 다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 너무 어려 잘 모를 것 같지만 그렇게 아이의 심령 속에 심어진 하나님 말씀이 알게 모르게 어느덧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점차 성장하는 것을 느낀다.

중고등부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중1 남자아이들이 선생님 집에서 1박 캠핑하는 사진 속에, 아이의 얼굴이 참 밝고 즐겁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은 정말 최고 중의 최고다!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자

부족하고 때론 약점도 많은 나지만, 기도할 때나 일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가 있다.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까 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특히 더 그렇다. ‘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다 얼마 전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는 이러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백성의 수효가 너무도 많아 올바르게 송사를 판단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이고, 달리 말하면 그가 받은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겠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에 감동하셨다.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맞았다고 하시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과 장수도 더불어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이를 볼 때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옛 속담도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감동케 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자.

늘 내 속에 예수를 채워가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동케 하는, 하나님이 자랑하고픈 자녀가 되어보자.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라  
네가 만사행통하리라  
- 봉우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 황금 대접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나 선지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남자들에게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데, 함께 장을 보고 긴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교회 봉사를 하자고 하면 죽어도 못한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대접이 무엇이기에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셨을까요?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0세 된 청년이 93세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네가 누구를 대하든, 이 말씀대로 살아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어주고, 작은 물 한 잔이라도 갖다 드리고, 교회 봉사에 먼저 나서고, 네가 먼저 대접하는 습관을 계속하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자.”고 하면 모두 ‘아멘’입니다. 그러나 옆 사람을 섬기고 전도하자는 말에는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한 번의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일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식사 후 물 한 잔 대접하기, 수저 먼저 놓아주기, 옆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접이 율법이었나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에게 친절하라’는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 방식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가난한 이들,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으며,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고, 먹고 마시기를 즐기시는 참 따뜻한 분이셨지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도 “인자는 와서 먹

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더라”고 하셨습니다.

경쟁과 이기심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실천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작은 일상에서 웃으며 인사하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손 내밀기, 교회 봉사에 먼저 참여하기, 식사 후 설거지 먼저 하기, 용서와 관용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기... 이 모든 것이 바로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새기며 결단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자’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오늘 배운 황금률, 즉 황금대접을 실천하며 섬겨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제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최연식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533.9191